

평창군시설관리공단, 고용부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사업 선정

✎ 우정연 기자 | ⓒ 승인 2025.08.29 13:03

임금체계·근무제도 개편...조직 경쟁력·직원 만족도 제고 기대



최순철 평창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왼쪽)이 29일 컨설팅 전문기관인 한국표준협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평창군시설관리공단]

[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우정연 기자] 강원 평창군시설관리공단은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주관한 '2025년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지원사업'의 심화·특화형 부문에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컨설팅 전문기관인 한국표준협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컨설팅은 임금체계 설계(심화형), 근무체계 개편(특화형)을 핵심 과제로 하며 오는 11월 21일까지 15주간 추진된다.

사업비는 전액 정부가 지원하며 공단은 별도의 부담 없이 참여한다.

공단은 이 사업을 통해 합리적인 임금체계 구축으로 조직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 강화, 효율적 근무 체계 개편으로 업무 생산성 향상, 직원 만족도 제고, 조직문화 개선을 실현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현장 컨설팅, 부서별 협조체계 구축, 단계별 실행계획 수립 등을 통해 성과를 조직 운영 전반에 적용할 예정이다.

최순철 평창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이번 선정은 공단이 추진해 온 혁신과 상생 조직문화의 의자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직원 모두가 만족하고 군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도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정연 기자 wooj2705@naver.com